중국 기업들의 황당한 구인광고

남성 개발자의 사기를 북돋워줄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알리바바)
'이 회사에 입사한 건 여성 면접관과 인사부 직원이 예뻐서였습니다.' (텐센트)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들의 구인 광고에 등장한 문구들이다. 남성 지원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동료 여직원의 성적 매력만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조선일보' 에 따르면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3일 2013~2018년 게재된 중국의 온라인 구인 광고 등 3만6,000건을 분석, '중국:오직 남성만 뽑습니다' 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HRW는 "중국 정부는 물론 세계적 수준이라는 중국 기업들도 시대착오적인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중국 기업 알리바바기 미녀들을 내세워 '이들의 동료가 되길 원하시냐'라는 문구의 구인 광고를 올렸다. ⓒ 웨이보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1월 소셜 미디어 광고에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도발적 포즈를 취한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은 당신과 동료가 되길 원한다. 당신도 원하나' 란 문구를 실었다. 동영상에선 알리바바 직원으로 소개된 여성들이 관능적인 폴댄스를 추거나 한 가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기술직 남자가 좋아요!" 라며 웃는다. 이 회사는 2015년엔 '아오이 소라(일본 포르노 배우)를 닮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이란 광고를 냈다.

중국 시총 1위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2016년 미국 법인 구인 광고에선 남성 직원이 '텐센트에 들어온 것은 동물적 본능에 끌려서다. 인사부 여직원과 면접관들이 매우 예뻤다' 고 했다.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도 2015년 '흰 피부에 부유하고 아름다운 (동료)여성과 결혼해 인생 좀 펴보겠느냐' 는 소셜 미디어 광고를 올렸다.

HRW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 기관 구인 광고 중 '남성만 지원 가능' '남성 우대' 를 명기한 경우가 전체의 19%였고, '여성 우대' 를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건뿐이었다.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는 "주말과 연휴에 일할 수 있고 야근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며 "남성만 지원하라!" 고 했다.

여성 구인엔 업무와 무관한 외모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류 판매직에 '18~30세, 키 163㎝ 이상에 미관상 보기 좋아야 함' 이라거나 국영 고속철도 관리직에 '옷을 잘 입고 날씬하며 예뻐야 함' 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이들 회사들은 HRW 보고서 발표 직후 성 차별적 구인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성 차별적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 전쟁 중 산화한 터키 청년 장교의 가슴 뭉클한 편지

6·25 전쟁에서 아군의 승리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터키군 청년 장교의 편지가 67년만에 터키 언론에 공개되며 사연을 접한 사람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 6·25전쟁 터키군 '영웅' 메흐메트 귀넨츠 중위(오른쪽)와 한국 소녀의 모습. (사진: 터키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주인공은 1951년 4월 2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영웅적인 죽음을 맞은 터키군 1여단 메흐메트 귀넨츠(Mehmet Gunenc) 중위(당시 26세).

지난 24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당시 중공군은 참전 이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공세에 최대 병력을 동원해 연합국을 압박했다. 적군의 위협적 공세에 막대한 피해를 당한 터키군 부대의 전방 포병관측장교였던 귀넨츠 중위는 본부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적군은 우리 중대가 주둔한 언덕을 점령했다. 부대원 다수가 교전 중에 사망했고, 무전병도 전사했다. 내가 집중 발포 좌표를 주겠다."

귀넨츠 중위가 연대본부에 넘긴 좌표는 바로 자신이 위치한 곳이었다. 본부 포병 연락장교가 '그 곳은 당신 중대가 있는 곳이니 안 된다' 며 다시 확인했지만 단호한 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군 총에 죽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자 바람이다. 정확한 좌표를 다시 주겠다. 모든 포병부대는 이곳으로 발포해야 한다."

이후 얼마 안 있어 교신이 끊어졌다.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야 했던 터키군은 논의 끝에 결단을 내려 귀넨츠 중위가 준 좌표로 집중 포격을 했다. 귀넨츠 중위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숨으로 중공군을 막아내며 임무를 완수했다.

한편 귀넨츠 중위의 조카는 귀넨츠 중위가 고향 발르케시르주(州) 반드르마의 지인 에디프 월칸(90)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유품으로 보관해오다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내용은 이렇다.

"에디프,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터키군 4천500명의 심장은 '와탄, 와탄('조국' 이라는 뜻)' 하며 박동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조국에 있고, 우리만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런 모든 상황에도 유일한 위안은 우리가 터키 후손에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만이 그 위대한 날을 볼 수 있겠지.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한국 산중에서 영원히 잠들었어. 아침에 같은 방에서 웃으며 일어나서 서로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지. 그 중에 한 사람도 마지막 숨을 거두며 슬퍼하지 않았어. 아마도 그들의 마지막 말은 '아, 나의 조국' 이었을 거다."

한국정부는 그의 숭고한 희생과 무공을 기리고자 2014년 5월 귀넨츠 중위를 '이달의 6·25 전쟁 호국영웅' 으로 선정한 바 있다.

www.suhlaw.com
info@suhlaw.com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of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